

#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 농진청,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오는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필지)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 ▲작물생육에 맞는 재해 예측정보 ▲재해위험 단계에 따라 작물 맞춤형 농가 관리대책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이동통신)을 통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체계)이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동해예보, 중기예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의 지형 특성과 농촌지역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를 반영해 30x30m(900㎡) 단위로 상세한 농장 단위의 기상정보를 생산한다.

(https://agmet.kr)과 모바일(문자, 웹) 앱)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 날씨별 농장별 기온 강수량 일사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기온은 최대 9일,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3일 후까지 예보한다. 농장재해는 고온 해, 동해, 저온 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계에 피해를 보는 기상재해와 오랜 기간의 이상기상 누적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가뭄해, 습해, 일조 부족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재해위험 여부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최대 9일 전에 알려준다. 관리대책은 재해위험 발생 시 사과 배, 복숭아 등 32개 작물에 대한 생육단계별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즉시·사후 대책이 제공된다.

농진청은 지난 2014~2017년 심진강수계, 지리산 자락의 복잡한 지형에 지리해 다양한 기후특성이 나타나고 좁은 지역에서 여러 작목을 재배하는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확성을 검증하고, 2018~2019년 전북 14개 시군에서 현장 실증을 수행했으며, 신농업기후 대응사업과 함께 지난해부터 전국 규모 통합서비스를 위한 고도화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검증지역 내 농장(필지)에서 최저기온의 추정 신뢰성은 96.3%이며, 예측값과 실제값의 평균오차는 0.64도(°C)로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 지역을 올해 4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진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기상 예측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정밀한 농업기상과 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몽골 센터 최만영 소장(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로부터 '최고농업인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 몽골 농업발전 기여 공로 인정

### 최만영 코피아 몽골센터 소장,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 지역 환경 적합 양파·방울토마토 국가장려품종 등록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몽골 센터 최만영 소장이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이하 농업부)로부터 '최고농업인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고농업인상(Foremost Agricultural Worker Award)은 몽골 농업부가 몽골의 농업기술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상에 외국인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몽골 농업부는 최만영 소장이 한국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몽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적극 추진하며, 몽골 농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2018년부터 KOPIA 몽골 센터의 소장을 역임하면서 몽골 농업의 현안 사항인 밀 우량종자 생산·보급 사업을 추진해 몽

골 밀 종자 소요량의 10%에 해당하는 3007톤을 보급했다. 또한 맞춤형 배합사료(TMR) 프로그램을 개발해 비육우 체중을 1.3배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최 소장은 고기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채소 생산을 늘리려는 몽골 농업 정책에 맞춰 몽골 환경에 적합한 양파와 방울토마토 우량품종을 선발했고, 몽골 국가장려품종으로 등록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은 농촌진흥청이 한국의 농업과학기술과 농촌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함께 나눈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도내 기업 세무업무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

### 전주상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실무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는 23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의 세무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세무사이자 공인노무사인 김경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매출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 ▲경감 공제세액 등과

관련한 공과가 큰 사업에 대해 주요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교육은 50명 이내의 최소 인원

만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180여명의 기업체 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교육은 관내 기업들의 회계 및 세무분야 수요가 많아 준비했다"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하고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신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용들을 놓쳐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담당자들의 교육이수를 통해 조금이나마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23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의 세무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 5월 전북 수출 수출 6억2126만 달러

### 전년동월대비 67.8% ↑ ...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율

### 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건설광산기계 등이 이끌어

2021년 5월 전라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8%가 증가한 6억 2126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라북도 수출 증가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2010년 이후 11년만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발표한 2021년 5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8% 증가한 6억2126만 달러, 수입은 24.1% 증가한 4억 6219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5908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117.8% 증가한 정밀화학원료(5.705만, 117.8%)이었으며, 동제품(\$5,654만, 124.4%), 합성수지(\$5,029만, 134.8%), 건설광산기계(\$4,753만, 46.0%), 농약및의약품(\$4,115만, 2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대 수출실적 1~3위를 기록한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합성수지는 평균 125%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는데,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3,331만, 39.8%), 미국(\$1억1,578만, 135.7%), 일본(\$4,911만, 87.6%) 베트남(\$4,008만, 85.5%), 폴란드(\$2,889만, 151.2%) 등 5대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

가했다. 특히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35.7%나 증가하며 전체 전북지역 수출액 중 18.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 13.3%보다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중국과의 수출 비중 격차를 12.5%에서 2.8%로 약 10%가량 좁히게 되었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작년 말부터 전북지역 수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정상화 과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맞춰 전라북도의 수출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소 수출기업들이 해상운임 급등과 선박부족에 따른 물류 차질 등의 애로를 겪고 있어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농식품부, 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종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5월 31일까지 진행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에 114만여 건이 신청·접수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급변하는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구축해 농업인이 제공하는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해 오는 7월부터 농관원·자치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소농직불금 요건을 미충족해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 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올해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국민연금, 9월까지 연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2021년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지역가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새만금 녹색생태축 확보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이소열)은 23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혁신 일환으로 광활한 새만금 간척지에 풍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만금 모목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옥구읍 인근 공유수면 일원에 위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11공구 100ha 면적에 모목 재배를 위한 모목장을 조성하고 방풍림을 비롯한 새만금 숲에 수목을 공급하여 새만금 녹색생태축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는 약 200ha의 방풍림이 조성 예정이어서 많은 수목이 필요하다. 외부 수목은 새만금 기후와 토양 환경에 다소 부적합하여 생장이 불량하고 적기에 필요량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새만금 모목장에서 재배하는 수목은 수 년간 현장시험연구를 통해서 수목종이 선정되었고 모든 수목은 용기(화분) 안에 재배해 이식효율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에도 수목을 제공하고 관리기술을 공유해 새만금 숲 조성에 대응적으로 협력을 나갈 예정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 서부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여름 휴가철 산림과 계곡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을 산림 사법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훼손행위, 계곡 내 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취사·야영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염물 투기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LX공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하정보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LX 지하정보 전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 LX, 지하정보 전문위원회 위촉식

### 전문가 10명 구성... 지하정보사업 혁신 지원 등 참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국가 지하정보사업 정책 제안 및 지하정보 전담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LX공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하정보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LX 지하정보 전문위원회' 자문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LX 지하정보 전문위원단은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지하정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하정보 전문위원단은 LX공사 지하정보사업의 주요업무 전략 방향 자문, ESG 경영전략을 반영한 지하정보사업 혁신 지원,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등 다

양한 정책 제안과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LX공사 최승욱 공간정보본부장은 "LX 지하정보 전문위원단으로서 국가 지하정보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정보 전담기구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면서 "LX공사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정보 구축을 비롯한 SOC 디지털화 산업으로 한국판 뉴딜 완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지하정보 구축 지원 및 정확도 개선을 위해 지하정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및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지원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 및 관리 ▲조사·연구 및 데이터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